

연합회동정

동정

연합회

연합회 사무국직원 워크샵 개최

- 6월 28일 ~ 29일 무주리조트에서



환경시설과장의 후원으로 연합회 창립이래 처음으로 개최됐다.

연합회(회장 이상호)는 지난 6월 28일에서 29일 양일간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직원 워크샵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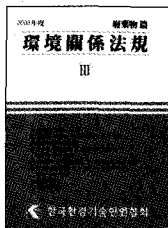
이상호 회장을 비롯해 전 직원이 참석한 이번 워크샵에서는 직원간 단합을 통해 연합회의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정립했다.

이번 워크샵은 전북협의회 박전수 회장과 무주리조트 김영진

ET분야 교육 유치를 위해 환경부에 의견 피력

연합회는 지난 7월 10일 환경부를 방문, 환경기술인 교육에 대해 관계실무자와 만나 연합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병오 사무국장은 "환경기술인에 대한 현장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연합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현재 환경부의 용역을 받아 환경관리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ET분야 인재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연합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용역 결과와 공청회를 통해 좋은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03년 환경관계 법규제작 배포

연합회는 지난 7월 2003년판 환경관계법규 폐기물편, 대기편, 수질편을 제작,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4*6배판으로 6월까지 대기, 수질, 폐기물의 시행규칙 및 시행령을 담았으며 정가는 23,000원이다.

연합회장동정



'한국공직자환경공로 시민의 상' 시상식에 참석 이상호 회장은 지난 7월 4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한국공직자환경공로 시민의 상' 시상식에 추천, 심사, 집행위원으로서 참석하여 내빈들을 소개했다.

산업폐수관리체계 연구회 9차 운영회의 참석 이상호 회장은 지난 7월 21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제9차 '산업폐수관리체계 연구회 운영회의'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현 기업실정을 피력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 회의는 바람직한 산업폐수 관리체계방안 도출을 위한 회의로 보고서를 작성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전충남협의회



자연정화 캠페인 및 등반대회 개최

대전충남협의회(회장 김금중)는 지난 7월 5일 계룡산 국립공원에서 자연정화 및 캠페인 및 임원하계 수련회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임원 및 가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산에서 자연정화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이와 함께 등반대회를 통해 단합대회를 가졌다.

서울협의회

오존저감 캠페인 실시



서울협의회(회장 이귀향)는 지난 7월 10일(목) 오후 4시 신도림역 앞에서 임원 및 회원, 구로구청 환경과, 안양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약 80여명이 모여서 오존저감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대도시의 오존 오염도가 매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고 오존저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서울협의회 회원들은 오존저감을 알리는 피켓과 홍보물을 배포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며, 시종일관 적극적이고 밝은 표정으로 캠페인에 동참했다.

인천협의회

어린이 물사랑 교실 열어

인천협의회(회장 김명제)는 지난 7월 12일 어린이 물사랑 교실을 열고 무지개 탐정단 6기생들

연합회동정



천을 정확하게 비교하는 등 관심이 높았다.

무지개탐정단은 3년과정으로 지난 6월 28일은 굴포천 부평지류, 삼산지류, 갈산지류, 청천지류 등을 분석조사했다.

하천수질감시활동 설명회



인천협의회는 지난 7월 2일 인천상공회의소 8층에서 승기천의 하천수질감시활동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앞으로 남동공단에서 유입되는 8개지류의 수질을 분석하여 폐수의 유입을 차단하도록 하고 수질보전 홍보 및 정화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천수질감시활동은 인근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기술인들이 직접 참석해 승기천을 살리기 위한 행사로 무단으로 방류하는 폐수, 슬러지, 폐유 등의 감시와 몰래 버리는 쓰레기 등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감시원에게는 분석장비, 교통 및 활동비,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하게 된다. 자세한 연락은 567-3982 신미선, 011-346-1365 김갑석 회장에게로 하면 된다.

민간모니터링 사업 설명회 개최



인천협의회와 인천광역시는 지난 7월 10일 김정 문설령당에서 민간모니터링 활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올해 환경오염취약지구로 4개 지역을 선정하여 민간단체 모니터링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인천협의회는 작년 이어 서구 석남·가좌지역의 모니터링 활동(단장 김갑석)을 벌이게 된다.

서구는 대부분이 영세한 기업들이 밀집한 공장지역이 많은 환경오염취약지역으로 지정돼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협의회는 민간모니터링활동 운영단체로 지정돼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먼저는 각기업의 산업현장에서의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경험과 지식을 통해 지역의 환경보전에 도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홈닥터워크샵 참가

인천협의회는 지난 5월 16~17일 인천공무원교육원에서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주최하는 제1회 홈닥터워크샵에 참가했다.

환경부와 인천광역시, 경인지방환경청 그리고 인천대학교가 후원한 이번 워크샵에서는 홈닥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기술인들의 역할이 큼이 지적되었다.

특히 연합회 이상호 회장의 기조강연을 통해 환경기술인들의 임무와 책임이 큰 것을 알게 되었다.

인천협의회는 본 환경홈닥터제도의 바른 정착을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발맞추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협의회

수질오염사고 가상방제 훈련에 참석

경남협의회(회장 황수남)는 지난 7월 15일 창원시 성수원 일대에서 수질오염사고 가상 방제훈련에 참가했다.

창원시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대우중합기계 등 성수원 부근에 위치한 기업들의 환경관계자와 창원시 환경관련 공무원, 소방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수질오염사고를 가상하여 상류에서는 소방차를 이용 가상방제약제를 살포하고 하류에서는 울일헨스를 설치한 후 흡착포 및 유화제 등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했다.

이날의 훈련은 유관기관 및 인근 기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구축으로 수질오염사고의 대응 능력제고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본보기적 모의훈련이었으며, 훈련을 통한 대처방법의 숙달로 실제사항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